

구미 생산라인 증설... PI첨단소재, 2023년까지 1430억 투자

연 600톤 규모 PI필름 생산설비 증설 40여명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여 구미시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부



PI첨단소재는 2023년까지 현 공장부지 내에 1430억 원을 투자해 연산 600톤 규모의 PI필름 생산라인 2기를 증설하고 4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지역에 올 하반기 들어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13일 구미시청에서 구미시 및 PI첨단소재와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 제조설비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PI첨단소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림 PI첨단소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PI첨단소재는 2023년까지 현 공장부지 내에 1430억 원을 투자해 연산 600톤 규모의 PI필름 생산라인 2기를 증설하고 4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PI첨단소재의 이번 투자는 IT기기의

고사양화 및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 OLED 디스플레이 적용 확대 추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폴리이미드(PI)는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물질 중 가장 내열성이 높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금속인 철과 동일한 강도를 가지면서도 무게는 약 1/10밖에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폴리이미드를 필름 형태로 제조한 PI필름은 영상 400도 이상의 고온이나

영하 270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필름으로 전기적 특성이 절연성이 우수하며, 얇고 굴곡성이 뛰어난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이다.

1960년대 우주 항공용도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돼 1990년대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이 확대됐으며,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자동차, 5G 안테나 소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PI첨단소재는 전신인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PI필름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6월,

각각의 PI필름사업부를 분할, 합병해 SKC·KOLON PI로 최초 설립됐다.

이후 2020년 3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해 현재의 PI첨단소재로 사명을 변경했다.

기존 주주사에서 40여년 간 축적해온 화학과 필름 기반의 기술력을 이어받아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의 기업들과 경쟁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년 연속 PI 필름 분야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PI 소재를 활용한 필름뿐만 아니라 액체인 바니쉬, 고체인 파우더도 개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국산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태림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자동차 및 이차전지 전용 차세대 고사양 PI필름 생산 설비를 구미공장에 증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PI시장의 글로벌 1위인 PI첨단소재가 종합 소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

해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 구미 투자와 함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결정해 준 PI첨단소재 대표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경북도지사는 “PI첨단소재가 종합 소재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분야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미 5산단이 점차 활기를 띠어 기쁘다.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가 없도록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 하반기 들어 PI첨단소재를 비롯해 구미지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원익큐앤씨(800억원)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대진기계(400억원), 아라미드 강화섬유를 제조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2,300억원)가 각각 생산설비 신·증설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gj2136@metroseoul.co.kr

‘합성세제 NO’ 신안군, 갯벌 보전 캠페인

섬 마을 도랑 살리기 프로젝트 3개월간 수질개선 효과 모니터링



신안군은 도초면 한밭마을 주민들이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신안군이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을 위해 섬 마을 도랑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도초면 한밭마을 주민들이 하천(도랑)의 건강성을 살리기 위해 가정에서 합성세제 대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50여 가구 주민들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설거지, 세탁, 청소 등에 활용하며 3개월 동안 수질개선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신안군 갯벌 1100.86㎢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갯벌로 유입되는 도랑과 하천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안군의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은 39% (전국 94%, 전남 80%)로 낮다. 수십

억원이 소요되는 처리시설을 모든 섬에 설치할 수 없기에 일부 생활하수가 갯벌로 방류되고 있다.

신안군은 우선 2019년 도초도 한밭마을 입구에는 친환경 생태습지 3150㎡가 시범적으로 조성됐다. 마을의 하수는 창포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식재된 6개의 작은 생태습지를 통과해 하천으로 방류돼 하수를 정화하고 있다. 또 유용미생물 희석액을 이용한 도랑살리기 사업도 실시한다.

수질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초도의 하천, 습지, 도랑 등 30여 곳에서 매달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밭습지에서 일부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습지가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마을주민들이 직접 오수를 줄이기 위해 합성세제는 줄이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하천과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 참여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중견련, 태풍 피해 어르신에 식료품 꾸러미

14가지 먹거리 구성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가위를 앞두고 태풍 피해지역 어르신들께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중견련은 보건복지부 위탁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북 포항 선재재가노인종합지원센터와 경남 사천 사천노인복지센터에 밀반찬, 간편식품 등 14가지 먹거리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식료품 꾸러미는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 등지에 사는 노인 5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2016년부터 지역 복지관과 취약계층 가구에 생필품, 식료품, 온누

리상품 등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 온기 회복에 동참해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방역용 개인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

또 2017년부터는 중견기업계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밥퍼 나눔 봉사, 점자동화책·아동용 티셔츠 제작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중견련 반원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에 더해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마저 무너진 이웃들을 떠올리면 위로를 전하기조차 힘든 심정”이라면서 “중견기업들이 경제 회복을 이끌어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함평군 ‘원추’ 단감, 추석 전 첫 수확

농진청, 국산 품종 단감 개발 추진

이번 한가위에는 국산 품종의 과즙이 풍부한 ‘원추’ 단감을 맛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13일 “지난해부터 함평천지 감연구회”를 중심으로 관내 20농가 5.0ha에 국내육성 신품종인 ‘원추’ 단감 재배지를 조성해 왔으며, 추석 전 첫 수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국내에서 재배되던 단감의 80% 이상이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에 편중돼 있어, 농진청으로부터

는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추’, ‘원추’, ‘로망’ 등 다양한 국산 품종의 단감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원추’는 ‘태추’와 ‘신추’ 단감의 교배종으로 식감이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으로 오는 9월 중순이 수확 적기이다.

군 관계자는 “원추는 15브릭스의 고당도로 과중은 350g 안팎의 대과 품종에 모양도 좋아 추석 차례상에 올리기에 제격”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경북도-문화재단

‘경북 사투리 큰잔치’ 개최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이 다음달 7일 ‘경북 사투리 큰잔치’를 연다.

사투리로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고자 마련되는 행사다. ‘큰잔치’는 사투리 공모전과 사투리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사투리 공모전은 오는 16일까지 사투리와 관련된 추억이 깃든 회화, 시, 웹툰,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투리 경연대회는 경북의 사투리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로 30일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북=김홍기 기자

2021년 전기차 2차 민간보급사업

전라남도 내 전기자동차 보급량 1위 지자체인 나주시가 올 연말까지 친환경 자동차 150대 시대를 연다. 나주시는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친환경차 150대 보급을 목표로 ‘2021년 전기차 2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액은 최대 176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단체로 오는 15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차량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00대를 보급 중이며 10월 중 5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을 개시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민간용 전기차 1332대를 보급했다.

하반기 150대를 더하면 전기차 보급 물량은 15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의 세부성과 지표인 ‘2025년까지 전기차 3000대 보급’ 목표량의 50%에 해당한다.